

선교사로서 받은 인상과 추억과 배운 것들

한국에 오기까지

1945년 내가 B29 폭격기를 타고 일본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공군 기지가 있던 티니안(Tinian)섬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을 보았다. 그들은 노예 이상으로 사탕수수 밭에서 작업하였다. 또한 미국 정복자들에 의하여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다. 그들은 얼굴이 비슷한 아시아 사람들끼리 깊은 반감이 있음을 미국 병사들이 깨달았을 때까지 일본인들과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한번은 여름철에 내가 마리아나 섬들의 수용소를 방문하는 길에 몇몇 한국인들을 언뜻 볼 수 있었다. 이 두 해안 지역은 집으로부터 아주 머나먼 곳이었으며 세계적인 격동에 볼모로 잡혀 있었다.

내가 아직도 티니안 섬에 있었을 때 B29에 의하여 원자 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다. 모든 것을 황폐시킨 무기였으며 분노와 미움을 극도로 자아내게 된 무기였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있어서 그 사건은 그곳이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으로 간주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는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며, 그들을 사랑하고 싶다.

몇 달 후에 전쟁은 끝났다. 나는 필리핀 지역으로 옮겨졌다. 거기에서 전쟁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는 교회와 관련을 맺으며 지냈다. 나는 그곳에서 필리핀 원주민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정식 선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고 다짐하기도 했다.

나의 조국 미국에 되돌아온 나는 매우 기뻐했다.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생존해 왔다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였다. 곧 나는 예일 대학 과정에서 받은 점수를 가지고 휘튼 대학에서 대학 과정을 마쳤다. 나는 얼마 안 되어서 선교지를 위하여 단호히 준비하는 사람인 그레이스 보겔(Grace Vogel)양을 만났

다. 그녀와 많은 기도 미팅을 통해서 깊이 교제하게 되었고, 결국은 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티벳의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확신하였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철저한 자기 반성을 가지는 동안에 나도 필리핀에서 티벳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따라서 우리는 1949년 스칸디나비아 선교협의회(Scandinavian Alliance Mission) 후보자가 되었다. 나는 중국이 티벳을 침략하였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1년간 신학 수업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우리의 계획도 수정해야만 하였다.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지내고 있는 몇 해 동안 가끔 지방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한부선 선교사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도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갖게 되었었다. 한국 전쟁은 죽음과 폐허를 몰고 온 만큼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했다. 고난을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놀라운 믿음으로 큰 담력과 사랑과 오래 참음을 보여 주었다. 그레이스와 나는 정통장로교선교위원회에 문의하였다. 비록 티벳이나 필리핀에서 섬길 기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을지라도 우리는 OPC(미국 정통 장로교)에 의해서 채워진 선교지를 정하도록 촉구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티벳으로 가는 한 길목이기도한 유일한 아시아 대륙의 땅, 한국을 정하였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국(그 당시)에 와서 브루스 헌트(한부선) 선교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고신측과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은 놀라운 특권이었다. 또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교회를 돕는 한 동료로서 훌륭한 교단과 함께 사역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에 대한 회상

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한 옛 일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눈에 선하게 다가온다. 위선 34도 선상에서, 그렇지만 언제나 38도선 아래에서 지난 34년간의 생활은 특별한 모습들, 수많은 것들로 얽힌 이야기들이 생각한다. 전쟁의 황폐함으로부터 경제적 대성장을 이룩하기까지, 화전민들이 모여 살던 촌락으로부터 대도시의 출렁이는 물결을 타며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방문하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인 성도들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돌고 돌았다. 그들과 함께 추위에 떨었고 더위를 견디었으며, 즐거운 일과 가

슴 아픈 일들을 나누었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일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동역하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참으로 큰 보람이었다.

한국 사람들과의 마음으로 만남은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문서를 통한 기독교 진리를 함께 나눔에서 이루어졌다. 문서 작업은 출판이나, 저술 작업을 통하여 배포되었고, 또는 도서관의 서재에 꽂혀 있는 책들을 통하여 만나곤 하였다. 나는 황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심도록 도와 주려고 애썼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함으로써 영양분을 공급하며,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물론 나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박사 학위도 없고, 학위 논문을 출판한 일도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장소나, 연구소, 모임의 이름들을 열거하는 대신, 나는 나의 기억력으로부터 내가 받은 인상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기독교 신자로서 내 눈에 비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원한다. 한국에 늦게 온 외국인으로서 이와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들의 생각이나 심성 및 견해에 있어서 나의 동족들에 대하여 내가 참으로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설명이 어찌면 편견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권위있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는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상호 통찰력을 나누며 진리 탐구에 정진하였다. 특별히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다. 그렇다. 바로 그 이유가 동기가 되어 국내외에서 복음을 보다 더 잘 전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한 1954년 1월은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겨울 중턱 무렵이었다. 모든 지역이 폐허되었다. 나는 부산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34년을 지냈다. 부산은 피난민들로 가득 찼다. 활용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다 난민들이 득실거렸다. 처량하기 그지없는 방은 성냥갑을 쌓아 올려 마분지를 발라 벽을 만들어 형성되었고, 지붕은 통조림 깡통을 납작하게 펴서 만들었다. 물이나 연료, 하수 처리 등은 언급을 할 수 없었다. 직업이나 일용품 등은 거의 찾을 수 없었던 때였다.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요소

들, 정치 경험이 없는 자들의 민중 선동 행위들,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치솟는 물가 등등으로 나라의 정세는 너무도 어수선하였다.

그러나 내가 처음에 받은 인상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교회의 사기(士氣) 문제였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의 육체적인 고통과 대항하여 담대히 서 있었고,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도 세속적인 정신을 강하게 거부하였던 모습이다. 이윤을 추구하며 쾌락과 영광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는 배격하였다. 겸손과 아름다운 평정 속에서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설교자들의 강력한 외침과 권면에 의하여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성도들의 뜨거운 통성 기도와 아멘 소리는 그들의 신앙 생활을 더욱 빛나게 하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며 사람들에게 능력있는 증거를 가져다 주었다. 목사들은 열성적인 여러 방법으로 보조를 받게 되었고, 건물들이 세워졌으며, 성경과 찬송가가 제작되어 배포되었다.

나는 도착해서 전망 있는 한 신학교의 강사로, 그리고 도서관장으로 일하면서 처음엔 도서관을 위해 책을 구입하는 일을 했다. 또 신학 서적들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나는 박운선 박사나, 박손혁, 김진홍, 이상근 교수들과 같은 신실하고도 힘있는 가르침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강력한 교회 지도력과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 한상동 목사, 한명동 목사, 전성도, 오종덕 목사 등 다수가 지키고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예배가 거행되고 있음을 매우 감격하였다. 얼마 안 가서 해외에서 공부한 3명의 거장 신학생들이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학문을 이끌어 온 교수들을 도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들은 홍반식 박사, 오병세 박사, 이근삼 박사 등 나의 오랜 친구들이었다.

나의 역할은 언제나 작은 것이었고 초보적인 것들이었다. 나는 한국말 배우는 데 분투 노력하였으며 언제든지 도움이 되거나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도우려고 애썼다. 또 히브리어나 헬라어 등 영어 원서 강독 등을 맡아 기초 교육에 종사하였다. 나는 또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도우며 섬기는 일도 부탁받곤 하였다.

나의 강인한 선배 선교사인 브루스 헌트와 함께 나는 교회나 신학교들, 그리고 내가 운영한 성경학교까지 포함하여 정기적인 코오스든지, 단기 코오스든지 다양한 차원에서 자급과 자치의 원리를 실천하는 모습을 무척이나 기뻐하였다. 물론 경제적인 원조나 구호품 등이 화란과 미국, 심지어 일본의 개혁

교회들로부터 들어왔다. 또 외국의 정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대체로 교회는(여기서는 고신측을 말함) 홀로 서 있었으며 극심한 가난과 온갖 혼란의 시기 동안에도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갔다. 그러나 WCC 운동과 자유주의 신학 문제 등으로 인한 교회의 분열을 겪게 되면서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와 같은 그들의 입장은 고신측을 일종의 고립된 고아로 몰아붙인 타협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이 누린 많은 종류의 도움으로부터 격리되어 버렸다. 이러한 신앙의 지조가 강한 이들은 영웅적인 전도 활동의 모범이었고 일본과 공산주의의 압제로부터 순교를 당한 자들과 산 순교자들을 얻게 된 것이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온갖 회유로부터 견디어 온 신앙인들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혼란과 결핍 및 신학적인 위협과 고독한 와중에서 교회는 사탄의 공격과 더불어 내적인 문제와 자기 생식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문제의 크기에 의한 것은 몇몇만이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나 문제를 풀려는 그들의 노력 역시 큰 인상을 주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재적인 경향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에 나타났다. 그같은 현상은 견고한 장로교 헌법을 제정하는 일에 서로 상석을 차지하려는, 감옥에서부터 돌아온 영적 지도자들의 실력 행사 때문이었다. 이같은 경향은 최근에까지 지속되었고,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간격만 증폭시켰다. 영적 실력자들은 엄격주의, 열정, 희생 정신 위에 기초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율법주의와 병합되었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의식적인 과도한 역할 수행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나로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젊은 목회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잘못되어 간 흐름을 거부하였다. 나는 고신측이 다른 교파에게서 찾기 힘든 조화와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나는 지난 수년 동안 형식주의와 외부적인 치장, 심지어 바리새인적인 유사한 행동들 때문에 내적으로 수없이 많이 울었다. 웨스트민스터 개요서나 문서를 입으로만 말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 많은 지도자들에게서 명백히 드러났다. 교회의 조직이나 직분자들에게서 병행하는 권위의 실용적인 사용이 있지만 동시에 윤리적 행위와 관련한 율법주의는 교회의 정치나 권장이 너무나 자주 교계 실력자들의 독재 정치적 도구로 명백히 사용되게 만든 것이다.

선교사들로서 그러한 경향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왕족 정치나, 유교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이상주의적인 한국의 배경이 그같은 흐름을 자아내게 하였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서구의 교회로부터 경험과 통찰력을 배우라고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 그리고 성경적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젊은 신학자들로부터 나오는 개혁의 소리들은 기뻐할 일이었다. 나는 후자들의 그룹에 속한다.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할수록,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며 형제애를 깊이 느끼고 있다.

셋째, 과거의 상처들과 고립됨은 고신측 교회로 하여금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물결과 대항하여 싸우게 하였고, 또 I.C.C.C(국제 기독교 협의회) 운동과 같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속주의를 대항하는 힘을 발휘하게 하였던 것이다. 개혁 교회의 통합된 단체인 I.C.C.C. 문제로 더불은 큰 폭풍이 지나갔다. 고신측 교회는 화란에 있는 31개조 신앙 고백을 가진 쉴더(Schilder) 그룹의 교회들과 강력한 결연을 맺게 되었다. 이것은 교리적인 명확성을 낳게 하였고, 신학 교육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1959년에 분열을 맞아 새 교단을 형성한 합동측 교회는 N.A.E.와 관련을 꺾하려고 추진하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I.C.C.C. 에 가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O.P.C.와 R.P.C.E.S. (복음주의 협회) 그리고 나중엔 P.C.A. (미국 개혁 장로교)와 자매 결연을 맺었다. 물론 O.M.F와도 관련을 맺었다. 그러나 옛날 단일 장로교단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와 같은 큰 무질서한 그룹에게 약간의 유익만 있을 뿐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연들은 건전한 것들이었고 일반적으로 유익한 결과들을 얻게 되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는 동안에 선교사로서 내가 즐겨했고 열성을 다해서, 비록 그것 역시 아주 적은 손길이었다 하더라도 함께 협력하였던 곳에 큰 진전을 다져 놓았다. 즉, 전도 활동, 교회 개척, 자선 행위 등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적인 개선이나 문서 선교의 진전이 크게 향상되었다.

1. 전도 활동

교회의 전도팀들은 쪽복음들이나 전도지를 활용하면서 전도하였는데 교회를 통한 전도 활동은 아주 활력적이었다. 이 일은 늘 내 마음을 뜨겁게 하였다. 때로는 나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와 열심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었다. 내가 정착하기 시작한 때부터 외국 선교에 대한 관심 역시 지대하였다. 물론 초기의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 교회들을 목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열정적인 해외 선교에 대한 전망과 전생애를 다 바쳐 자원하여 헌신하는 젊은 선교사들의 활동을 생각할 때 놀랍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국도 해외 선교를 하되 원주민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선교사로서 나는 세계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접근에 있어서 선교 과목을 다양하게 가르쳤었다. 그 과정들은 신앙을 변호하는 것들이었다. 나는 젊은이들을 격려하였고 선교 활동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몇몇 한국 학생들을 인도와 필리핀에 데리고 가서 현장 실습을 하도록 했다. 그 후에 나는 합동측 선교사들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여 신학교 운영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 고신측 선교사들에 의하여 협력하게 된 선교 운동을 필리핀에서 기본적으로 3년을 보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38년간의 나의 선교사 경력을 마무리짓게 된 아주 뜻깊은 것이었다. 이 선교 사역은 나중에 다른 장로교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역되고 있다. 필리핀에서 다른 개척 교회 선교사들이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있어서 한국 선교사들의 정력적인 활동과 놀라운 성공에 나는 큰 감명을 받게 되었다.

2. 교회 개척 협력

한국에서 교회 설립하는 것과 나의 연관성은 대체로 시골 교회들에서 처음에 설교하는 사역으로 돕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서 읽을 만한 책들을 모으는 일, 서적을 염가로 보급하는 일, 또 시청각 재료 사용을 도와 주는 일 등을 함으로써 보충적인 지원을 한 것 뿐이었다. 나는 O. P. C. 선교 정책에 따라서 어떤 교회도 간섭하거나 학문 단체 등을 좌우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역자로서, 그리고 돕는 자로서 어떤 이해 관계가 개입됨이 없이 교회를 돕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였다. 대개 나의 제자들(신학교)이지만 한국인 사역자들은 나에게 사랑이 담긴 관심과 열정적인 노력의 모험들을 보여 주었다. 또 주님과 그의 말씀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좋은 실제들을 깨우쳐 주었다. 또 놀라운 추진력과 열매들을 나타내었다. 필리핀에

서도 그와 비슷한 면들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일에 있어서 나는 그들이 한국에서 본 과다한 것을 피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피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의 교회들이 자급과 자치를 이룩할 수 있으며, 또 기도와 전도 및 폭 넓은 사역을 통하여 계속하여 발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3. 자선 활동

기독교 병원, 고아원 및 나환자 수용소,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정신 병원이나 수용소 등을 운영하는 자선 사업이 필요하다. 이미 이것들은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들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줄로 안다. 여기에 나는 동료 선교사들 중에서 특별히 활동적이었다. 특히 음성 나환자들 속에서, 그리고 나환자들의 학교에서 사역을 하였다. 나는 나환자들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학 과정을 마련하여 7년 동안 운영한 영광 신학교의 첫 학장이자 유일한 교장이었다. 그것은 내게 아주 자주적인 일이었고 보상받는 경험이었다. 이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오늘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내가 도착하던 그 해에 그러한 계획들이 의료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장기려 박사에 의해서 진전되고 있는 중이었다. 수년 동안 놀라운 일을 이룩한 것은 소위 복음 병원이란 것이었고, 그 병원의 지점이나 진료소 등은 신실하고 뛰어난 목사 보조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총이다. 그 사역의 크기는 교단의 작은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대한 것이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교단적인 차원에서 보다 더 큰 지원을 해 줄 수 있었기를 희망했었다. 나는 한국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사항의 유혹들을 피해 주기를 바랐다. 하나는 구제 사역이 교회 재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운영된다든지, 또는 비기독교인 전문가들을 고용하여서 병원을 운영하는 따위의 일들이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가 정말 한탄할 수 밖에 없는 실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행동들이나 것이다. 실천에 있어서 윤리적 권한과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참된 순종과 영성에 대한 두 가지 지표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의 영을 통해 구세주로 말미암아 순결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4. 신학 교육 발전 추구

교육 기관들과 기초 훈련 과정의 탁월한 진전을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늘 상 추구해 온 것이다. 고려신학교와 고신대학은 놀라울 만한 규모로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학생들은 화란이나 미국, 영국 및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까지 가서 유학을 하게 되었다. 거의 모두가 개혁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공부를 마치고는 개혁주의 신앙을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충실하며, 놀라운 학위들을 받고 돌아왔다.

나도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Th. M.) 학위를 받았으며,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하기도 했다. 몇몇 교파들은 잘못된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서 엉뚱한 신학이나 잘못된 신앙을 답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모습과 고신측의 경우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선한 기르침을 교회에 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발전을 보는 일에 보다 큰 만족을 가졌던 것이다.

필리핀 선교지에서는(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신학적 교육을 위한 관심이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원주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고조되고 있다. 단순히 아는 체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피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기술만 개발시키려는 거짓된 강요를 배격하면서 나는 많은 필리핀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또 강단에 모여서 마음을 다하여 전도 방식으로 실습을 하고,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얻어지는 확신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본다. 진리와 봉사를 위한 분명한 비전과 사랑이 넘치는 열정적인 장로 교회들은 이 같은 모체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5. 문서 선교

독서실, 도서관 등을 설치하며,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 서적을 보급하는 것, 저술 및 출판 등 모든 것이 문서 선교에 해당된다.

우리가 서신서들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나 바울도 그들의 양들과 떠나 있게 될 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였던 모습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의 종들과 모든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의 입을 통하여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성경)은 시대를 지나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문서들로 말미암아 먼 거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또 장차 올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저자들, 학자들, 훌륭한 지도자들 및 현인들의 사상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문서 활동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미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만 하고 활용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34년간의 나 자신의 노력은 처음부터 문서 선교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였다. 부산에서 독서실, 서울에도 한 독서실을 개설하여 기독교 서적을 배치하였고 길거리에서 보행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이러한 문서들은 노방 전도나 구역 예배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손으로 다 운반하기는 힘들었어도 5천 권을 선택하여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보행자들이 쉽게 가져가도록 배치하여 두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부산에서는 세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 그중의 한 사람은 창녀였는데 지금은 마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집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두 명의 대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며 그들은 후에 결혼하여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

다양한 성경 연구 모임에 책을 기증하거나 파는 일 외에도 그 당시 빈약한 도서관 시설을 위해서 특별히 나는 도서관을 개관하거나 신학교 도서관을 돕는 일에도 열심히 하였다. 내가 시작한 도서관은 영광 신학교를 포함하여 부산 장로회 신학교(합동측)와 대구에 있는 합동측 신학교였다. 나는 고신측의 경북 신학교의 도서관을 처음으로 세워 확장하고 증축도 하였다. 그 외에도 나는 기금이나 책을 파는 일을 통하여 다른 도서관도 도왔다. 그중의 하나가 수원에 있는 합동 신학교(개혁파)였다. 그러나 대체로 나는 고려 신학교(고신대학)와 칼빈학원의 도서관 사서요 운영자였다. 나는 34년간의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도서들이 처음 천 권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5만여 권의 장서가 된 것을 보았다. 나는 초기의 나의 노력과 수고가 지금도 계속되는 발전을 위한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기 그지없는 것이다.

서구 신학 서적들을 판매하는 일은 놀라웁게 늘어났는데 이 일은 나와 나의 동료 랄프 잉글리쉬(Ralph English)가 도맡아 하였다. 고려 신학교에서만 아니라 합동 신학교에서 수천권의 책들이 저장되었고 정기적으로 판매되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대부분 부산에서 이루어졌다. 외국 서적을 구입하는

데는 늘 외국 돈을 마련해야 했다. 그 일도 내가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봉사였다.

나의 저술 가운데 서너 권의 책들과 논문들은 다른 서적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반면, 즉 농촌 지역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 기독교 고전, 선교 및 비교 종교학 등을 기술함으로써 큰 만족을 가졌다. 그러한 방면의 책들은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박종철씨의 도움으로 번역을 한 메쯔거(Metzger)의 헬라어 사전인 「신약원어 참고서」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매우 기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34년간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문서 사역을 한 최종적인 일을 언급하게 만든다. 개혁주의신행협회의 한 설립 멤버로서 1988년까지 30여년 동안 본 협회를 상당히 열심히 도왔었다. 외국 출판사로부터 출판 허락을 받는 일, 출판권을 얻는 일이라든지, 출판 계획을 세우는 일, 책 표지 정하는 일, 타이프 치는 일 등을 포함하여 책들을 편찬해 낸 일을 대부분 언급함으로써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나는 그 어떤 회원보다도 많이 개혁주의신행협회에서 나오는 책들을 팔거나 보급한 사람이다. 단지 도서관뿐 아니라 내가 방문한 시골 교회들에게도 책을 팔며 보급하였다. 대부분 광고도 없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쉽게 책을 판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개혁주의신행협회를 돕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으며 지금의 신행협회로 성장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방면에서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나는 한국에서 문서 선교가 계속하여 활발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내가 한국을 떠난 것은 인도와 필리핀에서 비슷한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나는 강단에서 외쳐진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범위한 보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음을 더더욱 확신한다. 이 일은 교회 벽을 훨씬 멀리 뛰어넘어 간다. 문서는 독자가 무엇을 읽을 것인지, 그리고 관심 갖는 것을 선택해서 읽게 될 때 마음과 심령을 꿰뚫게 되는 것이다. 설교만 듣는 자들은 책이 가져다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그들은 설교자가 설교하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며, 설교자의 말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책은 읽고 싶을 때 빨리 또는 천천히 읽을 수 있으며, 우리의 양심에 새길 수도 있다. 또 사례금을 줄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모아 둘 수 있는 것이다. 책들은 말하는 것을 듣는 것과는 결코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책들은 말로

듣는 것과는 또 별다른 방법으로 교통하게 한다. 녹음 테이프조차도 책들의 목차나, 페이지 숫자, 각주 및 인덱스 등을 쉽게 전해 주지 못한다. 책은 가장 오래된 발명품이지만 모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현대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긴 설명은 원래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형제들, 특히 여러분의 고귀한 나라에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종으로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형제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서 보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한 것들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발자국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땅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맑은 물을 흐리게 하는 것이 되지 않았기를 간망한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내가 봉사할 특권을 누리게 해 준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에 의하여 주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바란다.